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Number as the Search Device on the Library Homepage

김 자 후(Ja-Hoo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평가기준에 의거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 제시          |
| 1. 연구 목적 및 내용                   | III. 분류(주제)브라우징을 위한 『DDC 고쳐 쓰기』표준(안) 제시 |
| 2. 도서관에서의 문헌분류 기대효과             | 1.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사례 연구                    |
| 3. 분류기호 검색장치개발 시 최우선 고려사항       | 2. 『DDC 고쳐 쓰기』표준(안) 제시                  |
| II. 홈페이지 상에서의 바람직한 분류기호 탐색장치 마련 | IV. 결론 및 제언                             |
| 1. 바람직한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중요도 순위별 요건들  |   |

### 초 록

이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 설정된 분류 관련 탐색장치들이 자료분류의 목적(분류의 본질적인 역할은 자료를 주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탁월한 브라우징 효과이고 또한 목록상에서 검색요소(색인어)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DC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국내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먼저 세부 항목을 마련하여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특히 분류브라우징(주제의 계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 관련 장치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DDC(1000구분 : 요목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변개하였다. 분류의 탐색요소로서의 기능과 브라우징 역할은 홈페이지 검색장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도서관 홈페이지, 문헌분류, 분류기호 탐색장치, 분류브라우징, DDC 고쳐 쓰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iterature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as the search and browsing device on the library homepage.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literature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as the search and browsing device on the homepage of library adopting DDC,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were proposed. For the purpose of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literature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as the browsing device, DDC third summary(the thousand section) which is suited to domestic circumstances was prepared.

Keywords: Library Homepage, Literature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as the Search Device, Classification Number System as the Browsing Device, DDC

\* 이 연구는 2008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hookim@gwangju.ac.kr)

• 접수일: 2008년 10월 29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내용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는 자료탐색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료에 분류기호<sup>1)</sup>를 배정하여 서가에 분류기호 순으로 배열하고 분류기호 또한 기본적인 검색장치가 되어 제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분류의 본질적인 역할은 자료를 주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탁월한 브라우징 효과이고 또한 목록 상에서 검색요소(색인어)의 역할도 하게 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1차적으로 검색요소 기능을 해야 하며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분류의 브라우징(일람, 개관 : 훑어보는 것) 역할을 보여 주는 장치도 상호 유기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래 도서관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로 대부분의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 위에 언급된 자료분류의 본질적인 효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심지어는 간과해 버린 경우도 발견되곤 하였다. 애써 자료를 분류한 결과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의 대표적인 탐색장치인 분류기호가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 다음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국내외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홈페이지 상에서의 대표적인 탐색장치인 분류기호가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분류브라우징(주제의 계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에 관련된 장치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DDC(1000구분, 요목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변개하였다. 침언하면 분류의 검색요소로서의 기능과 브라우징 역할은 홈페이지 장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류기호는 단지 다른 여러 검색요소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들 여러 검색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여 평가해야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분류기호만 떼 내어서 검색 효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필요한 경우 분류기호와 관련된 다른 검색장치들도 일정 부분 논급함으로써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호탐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만을 마련하지만 향후 분류기호를 포함한 검색시스

1) 국내에서는 대부분 『분류번호』라고 일컫는데 『classification number』의 번역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에서는 『분류기호』라고 하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KDC, DDC 등 십진아라비아 숫자기호를 채택하는 분류표들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 분류번호라고 해도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알파벳문자 중심의 미국의회도서관분류표(LCC)의 분류기호를 분류번호라고 한다면 부당하므로 전체 분류기호체계에 부합하는 표현으로는 『분류기호』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청구번호』도 같은 맥락이다.

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 도서관에서의 문헌분류 기대효과

도서관에서의 문헌분류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부캐넌(Buchanan)은 문헌분류표를 '구조를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순서(systematic order)를 가지는데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 쉽게 훑어볼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한 점이다'<sup>2)</sup> 라고 하면서 분류기호의 브라우징(일람, 개관 : 훑어보는 것)기능을 예찬한 바와 같이 문헌을 서가 상에 분류기호 순으로, 즉 체계화된 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동일주제의 문헌들이 한데 모이고 관련주제, 유사주제의 문헌들이 인접하게 되며 상하 주제 간의 계층관계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주제나 학문영역에 대한 브라우징이 아주 용이해 진다. 브라우징도 원하는 정보로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므로 넓은 의미의 색인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아 『문헌분류법』을 색인과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분류의 이러한 브라우징 역할은 너무나 탁월하여 기존의 어떠한 색인기술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분류기호는 일차적으로 브라우징기능(가장 중요)을 하게 되며 부수적인 역할로서 검색기능과 소재지시기능(청구기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류기호는 단순한 색인장치 그 이상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색인어(개념색인어의 일종)<sup>3)</sup>가 낚시에 비유된다면 분류기호(개념색인어 중 기호색인어)는 하위주제까지도 탐색되므로 그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고등어를 잡는다고 그물을 사용하였을 때 잡힌 물고기가 전부 고등어는 아니겠지만 잡힌 물고기 중에서 고등어를 골라내는 작업이 낚시(언어색인어)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이른바 분류의 브라우징 기능인 것이다. 만약 탐색결과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제한(2차, 보조)검색장치를 선택해서 범위를 좁히면 될 것이다.

분류기호를 통하여 검색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많은 분류기호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홈페이지 검색장치에서 분류기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분류작업을 하는 것일까? 단지 이용자에게 소재요소인 청구기호<sup>4)</sup>만 알려 준

2) Brian Buchanan 저, 鄭駉謀, 吳東根 共譯, 文獻分類理論(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89), p.23.

3) 표제, 저자명 등 일치를 요하는 형식색인어로 탐색을 하면 바로 원하는 해당 자료 하나만이 제한적으로 검색되며 (이 경우 완전일치검색)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즉 보다 망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전방일치검색 ←우측 절단검색』이나 『키워드검색 : 양측절단검색』 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제어(또는 키워드)같은 개념색인어도 망라적 검색 효과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색인어인 분류기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제어인 『도서관』으로 탐색하면 도서관 전체를 다룬 문헌만 검색되지만 『도서관』을 분류기호(020)로 검색(전방일치검색 전체)하게 된다면 도서관(020)의 하위 주제 전체가 망라적으로 검색(검색결과는 분류기호순 배열이 바람직함)될 것이다.

다면, 청구기호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필수적으로 기능하지만, 일부 눈치 빠른 이용자의 경우 서가 상에 몇번 접근하다보면 자신이 평소 원하는(전공하는) 주제 영역의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한 곳에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해당 분류기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지만,<sup>5)</sup>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암호같은 청구기호만 취해서 청구기호가 오로지 도서의 서가 상 주소(고유코드)인 것으로만 오해하면서 서가 상의 해당 위치로 찾아 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다시 말하면 일부 눈치 빠른 이용자만 어렵사리 분류기호 순 배열의 탁월한 브라우징 효과<sup>6)</sup>를 알아차리게 해서는 애써 분류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왕 애써서 분류한 이상 분류의 탁월한 브라우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분류의 본질과 효과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류부출의 효과<sup>7)</sup>도 알려야 할 것이며 이런 효과를 이용자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검색장치에 표현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분류표의 모든 기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을 포함한 관심분야(몇몇 분류기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분류의 효용가치를 잘 이해시킨 다음 관심(전공) 분야의 분류기호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그 후로는 그 기호를 통해 서가로 직접 접근하거나 검색장치에서 검색하거나 함으로써 분류의 본질적인 효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필자가 광주대도서관의 연간 종이책 대출 수를 확인해 본 결과 3만여 책이었으나 OPAC 접근 수는 1천여 건에 불과해 시스템(MAESTRO) 오류인 줄 알았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용자들이 일단 관심(전공)분야 분류기호를 확인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OPAC 탐색절차 없이 직접 서가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라우징 효과를 비롯한 분류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소러패킷 등 주제어와의 결합을 통하는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 
- 4) 『청구기호』라고 표현하는 것은 폐가제도서관 시절 이용자가 도서관직원에게 책을 찾아 달라고 요청(청구)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늘날 개가제 환경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청구기호의 기능(소재요소)을 좇아서 『소재기호』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무언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적합한 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일본의 근거 문헌] → 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編, 日本目錄規則 : 1987年版 改訂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1995), p.15.
  - 5) 일단 관심주제의 분류기호를 기억하기만 하면 그 순간 복잡한 분류기호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므로 도서관측에서는 여기까지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하면 될 것이다.
  - 6) 도서의 서가 상 배열이나 분류목록배열의 본질을 이해시켜야 한다.
  - 7) 오늘날 多學問的(學際的) 내용을 수록한 자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목록과의 相助性(분류 기호를 가능하면 대표주제(청구기호 구성부분) 뿐만 아니라 관련 학문들의 분류기호로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분류부출(목록상에서 검색요소로 제시 : 서가 상에서는 청구기호에 나와 있는 분류기호가 위치하는 곳에만 배열됨)으로써 다른 학문분야에 도움이 되는데도 찾아질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목록에서만이라도 다른 주제의 분류기호로도 동일한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장치를 일컬음. 일본에서는 분류중출이라고 표현한다)을 통하여 분류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3. 분류기호 검색장치 개발 시 최우선 고려 사항

분류기호로 탐색하였을 때 보이는 간략서지(간략목록)의 기본(default) 배열기준으로는 반드시 분류기호(또는 청구기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이 하여금 분류기호 순 배열의 최대 장점인 브라우징 역할, 즉 동일주제 한데 모이고 유사주제, 관련 주제 인접하며, 상위주제 하에 하위주제들이 계층적으로 모인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분류기호 전반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단 홈페이지의 서지 상으로라도 분류기호 순 배열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자주 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가 상의 자료배열방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친숙해져서 분류순배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류기호를 배열기준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방일치검색기법 : 우측절단검색기법』을 통하여 검색요소로 제시된 분류기호뿐만 아니라 하위주제의 자료들을 동시에 보여 주어야 분류기호검색의 본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은 그와 같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서지 상 배열 내용이 서가 상의 실물장서배열과 동일하므로 망라적 검색이 가능해진다. 미래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에 있어서도 후자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 견해로는 망라적 검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검색결과 양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정확도(정도율)에 민감하였으나 오늘날은 검색결과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간략서지(간략목록) 등 검색결과물을 홈페이지에서 일별(브라우징)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개발자들이 설계하는데 노력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검색결과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발행년도, 발행국명, 발행언어, 자료유형, 원문수록여부 등 제한검색(2차 검색, 보조검색)장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차 검색장치는 가급적 망라적인 것일수록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더욱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전방일치검색 : 우측절단검색』장치뿐 아니라 『SOLARS』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대도서관<sup>8)</sup>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일치검색』<sup>9)</sup>장치도 동시에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면<sup>10)</sup> 더욱 수준 높은 장치(시스템)가 될 것이다. 이 때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도움말』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하나만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전방일치검색』장치일 것이다.

한편 분류기호로 검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색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8) 서울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snu.ac.kr/Search.jsp?uid=1>> [인용 2008. 10. 4].

9) 대부분의 도서관검색시스템에는 이것 외에도 양측절단검색장치(예 : 헌법으로 탐색하면 헌법을 포함하는 단어가 들어 있는 데이터필드를 가진 레코드들이 히트된다)를 『키워드검색』이라고 표현 하면서 마련하고 있는데 분류기호검색의 기본 장치는 사실상 전방일치검색(우측절단검색)장치와 동일한 검색결과가 된다.

10) 이것은 분류기호가 단지 언어색인어처럼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분류기호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인데 대부분의 현장 사서들은 자료를 분류하는 이유가 이 역할때문만이라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소재기능으로서의 청구기호를 만들려고 분류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조사결과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이 장치가 없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회에 분류기호 검색을 위한 색인어 마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급해 보고자 한다. 분류기호 색인장치를 위한 언어색인어를 마련함에 있어서 분류표의 색인이나 분류표 본표의 표목을 추출하여 색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주제명표목표<sup>11)</sup>의 주제명표목에 나와 있는 표목들은 언어색인어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그 이유는 주제명표목들의 경우 누가 마련하더라도 나름대로 최고의 언어색인어라고 자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게다가 주제명표목표는 동의어, 광의어, 연관어 등도 제시하고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색인 및 검색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KDC, DDC 등 해당 분류기호가 제시되어 있어서 분류기호 검색도구로 채용하는데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 검색시스템에서의 분류기호 검색도구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회에 부언하자면 현재 KDC 5판 개정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명사 : 名辭)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는 일도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KDC 5판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표목)는 가급적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주제명표목표에서 적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sup>12)</sup> 이미 지난 일이지만 KDC 4판 이전에서도 분류표의 표목 선정 작업과 상관색인 마련 때에는 색인전문가(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 개발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했었어야 한다.

## II. 홈페이지 상에서의 바람직한 분류기호 탐색장치 마련

### 1. 바람직한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중요도 순위별 요건들<sup>13)</sup>

『청구기호』로 찾는 장치는 아래 ①과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①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기본

1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search/web\\_search/search/SubjectThesaurus.php?str\\_SearchWord=%uD5CC%uBC95&int\\_Index=1&int\\_ResultCount=100](http://www.nl.go.kr/search/web_search/search/SubjectThesaurus.php?str_SearchWord=%uD5CC%uBC95&int_Index=1&int_ResultCount=100)> [인용 2008. 10. 4].

※ 2008년 10월 4일 현재 511,356 건이라는 엄청난 수량의 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신규 주제명을 추가하면서 갱신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초에는 외부인들에게도 공개하여 주제명 생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로 찾기』 장치는 주제명표목표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으나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은 검색시스템에서 해당 분류기호를 대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제명표목표는 보통 분류기호도 대비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발 당시 필자도 참여하여 분류기호 부여작업을 한 바 있어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KDC 개정 주관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分類名辭』를 마련한 다음 『상관색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주시시키고 싶다. 미국의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LCSH), 일본주제명표목표(<[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sh.html](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sh.html)>)을 본받아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12)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관색인 작성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관색인 체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주제명표목표를 수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3) 지면절약을 위해 설명내용에서 문장 대신 해당 번호(①~④)만 제시하였으니 양지 바란다.

요건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일단 여기서는 제외시켰으며 다음 2절에서 구체적으로 논급하고자 한다.

① 분류기호로 찾는 장치 마련 : ②, ③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장치나 요건들은 바로 분류기호로 찾는 장치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1차 탐색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분류기호로 찾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바로 옆에 ②를 보여 줌으로써 먼저 ②를 검색하여 원하는 주제의 분류기호를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분류기호의 계층적 브라우징의 장점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③도 반드시 마련하고자 ②와 같이 ①옆에 보여 준다. 경우에 따라서 ③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면 ②는 별무효과일 수도 있다.

② 분류기호 찾는 장치(색인) 마련 : 분류기호로 찾는 장치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분류기호 찾는 색인이 바로 옆에 마련되어야 한다. 『SOLARS』 등 어떠한 토털전산시스템에서도 마련이 가능하며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는 주제명표목표 체계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주제별 브라우징장치 마련 : 분류의 브라우징기능의 탁월함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최우선 정보장치이고 더불어 분류기호 찾는 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부산대도서관(10구분)과 고려대도서관(100구분)<sup>14)</sup> 등 몇몇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 도서관홈페이지에는 1000구분(요목)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허락한다면 10000구분까지 단계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자료를 애써 분류한 다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 노력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제명(표목) 옆에 반드시 분류기호를 대비시켜 보여 주어야 분류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분류기호가 나와 있지 않아서<sup>15)</sup>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들마다 주제별 브라우징의 전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자신들의 『DDC 고쳐 쓰기』라고 할 수 있겠으나 KERIS, 오동근의 것, 『서울대 고쳐 쓰기』를 비롯하여 각 도서관에 제시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준적인 것을 다음 III장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것 또한 본 논문의 연구대상 가운데 하나가 된다.

14) 부산대학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dlsearch/TGUI/Theme/PULIP/main.asp>>; 고려대학교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orea.ac.kr/index.jsp>> [인용 2008. 10. 4].

15) 상당수 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제어(표목)를 클릭하면 위에 설정된 검색장치의 분류기호 항목에 해당 기호가 나타나고 검색하게 된다. 일견 잘 만들어진 장치처럼 보이지만 이용자들에게 분류기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주제브라우징 시에 분류기호를 보여 주고 그 분류기호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즉 단계적인 절차를 밟게해야 할 것이다.

④ 분류기호에 대한 『도움말』 마련 : 이용자들로 하여금 분류기호의 효용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말』이 있어야 하겠으며 나아가 충분한 이용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 평가기준에 의거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 제시

도서관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전에 필자 나름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중요도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sup>16)</sup> 조사대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아래 개개 평가항목의 중요도 순위별 구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홈페이지별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A : 홈페이지 검색장치에 분류(또는 분류기호)가 1차(기본) 검색장치로 나와 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분류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 장치는 홈페이지에서 대체로 『단순검색』 또는 『상세검색』(또는 고급검색, 전문가검색)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나와 있다.<sup>17)</sup> 또한 탐색결과 출력(간략목록)은 분류기호순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sup>18)</sup> 그것도 망라적 검색을 위하여 『전방일치검색』기법이 채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항까지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 평가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제외시키기로 한다.

① 『분류기호 찾는 장치』가 1차(기본) 검색장치로 나와 있으며 특별한 단점이 없다.<sup>19)</sup>

② 『분류기호 찾는 장치』가 1차(기본) 검색장치로 나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세검색』장치

16) 딱히 참고할만한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17) 『전문가검색』이라는 표현은 일반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그러한 도서관이 있다면 『전문가검색』에서 『상세검색』 또는 『고급검색』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 사실 도서관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청구기호(전방일치검색 전제)를 기본(default) 배열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기본은 『표제』 순 배열이지만 그 외에도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청구기호』 가운데 선택해서 그것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배열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되어 있다. 배열기준을 알기 어려운 도서관에서는 아마 제어번호 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지마스트페이지가 제어번호 순이므로 간략서지(간략목록)를 보여 줄 때 분류기호순 배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특별한 출력순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왕이면 청구기호 순(사실상 분류기호순)으로 배열하면 청구기호의 기본 기능인 소재사항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류의 기본기능인 브라우징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청구기호와 분류기호의 관계를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의회도서관은 기본(default)이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국내도서관들이 본받을 만하다.

19)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검색 대상 분류기호로서 KDC, DDC 등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 개개 도서관이 자관에서 사용하는 분류기호를 선택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배려로 대단히 잘 된 장치이지만 문제는 DDC기호로 검색하든, KDC로 검색 하든 검색된 간략서지(목록)에는 KDC에 기초한 청구기호만 나와 있다. 한 도서관에서의 청구기호는 해당 도서의 서가배열주소라는 제한된 역할로만 본다면 단지 한 가지의 분류기호만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청구기호는 KDC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기호는 단순히 소재기호 역할만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며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러한 사정이 도움말에 잘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 분류에 대해서 기초 또는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진 이용자들의 경우 혼란스러울 것은 자명하다. 이런 사례는 국가대표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이므로 대부분의 일반도서관에서는 상관없는 일이다.



에서 서명, 저자명 등 다른 1차 검색항목들과 더불어 『불논리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게끔 설정된 도서관들<sup>20)</sup>이 제법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서명&362』로 탐색한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분류기호는 절대로 다른 검색요소들과 『불논리연산자』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탐색결과를 보면 뒤의 분류기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검색장치에 분류(또는 분류기호)가 2차(제한, 보조) 검색요소로 나와 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이며 분류효과는 일절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검색시스템 장치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일부 도서관에서 발견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B : 홈페이지 검색장치에 분류기호 확인을 위한 색인장치가 나와 있다.

『A』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며, 가급적 『A』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유용한 탐색결과를 기대하려면 『완전일치검색』장치보다는 『키워드검색』<sup>21)</sup>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찾고자 하는 주제어(표목)가 포함된 모든 분류 항목(주제어→분류기호)을 동시에 보여 주므로 망라적인 검색이라는 분류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거의 유일하게 잘 마련되어 있다.

C : 홈페이지 검색장치에 분류를 의미하는 주제브라우저가 1차(기본) 검색요소<sup>22)</sup>로 나와 있다.<sup>23)</sup>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A』의 보조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B』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서 『A』와 마찬가지로 탐색결과 출력(간략목록)은 분류기호순 배열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망라적인 검색을 위하여 『전방일치검색』기법이 채용되어야 하지만 이 사항까지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 평가표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제외시키기로 한다.

① 주제어와 분류기호가 대비되어 있다.

대비된 분류기호의 경우 단순히 해당 분류기호만 보이지 말고, 예를 들어 주류는 사회과학(300~399), 강목은 법률학(360~369), 그리고 마지막 구분인 요목은 헌법(362.1~362.9)처럼 해당 분류기호의 차 하위 개념(종개념)까지 보여줌으로써 분류의 브라우저효과를 이해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sup>24)</sup> 또한 주제어를 클릭해서 히트된 자료의 간략서지(목록)는 하위 주제(전방

20) 국립중앙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동경대학교도서관, 서울대학교도서관(SOLARS 사용도서관) 등에서 발견된다. 또한 분류기호 뿐 아니라 청구기호, 표준부호(ISBN, ISSN, CODEN 등)도 『불논리연산자』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워드검색』장치는 절단기법 중 『양측절단기법』이므로 가장 망라적인 검색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자세한 도움말이 나와 있지 않다.

22) 주제어를 검색요소로 삼아 10진 분류법의 전개체계에 의거하여 대체로 『10구분→100구분→1000구분』방식으로 계층적으로 1000구분(요목)까지 전개하고 있다.

23) 전개 내용은 별도로 제Ⅲ장에서 취급하고 평가한다.

일치검색 효과)까지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국내에서는 ①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발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② 분류기호 없이 주제어만 나와 있는 경우로서 대부분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된다.<sup>25)</sup>

③ ②경우 가운데 주제브라우저를 1차(기본) 검색요소로 개발해 놓고서도 2차(보조, 제한) 검색요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런 장치는 시급히 제 위치로 옮겨져야 한다.<sup>26)</sup> 게다가 성균관대도서관 등 일부는 아예 2차(보조, 제한) 검색요소 기능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겠다.

D : 홈페이지 검색장치에 청구기호가 1차(기본) 검색요소로 나와 있다.

청구기호는 원래 검색요소라기보다는 소재요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청구기호로 찾는 경우 과거 전통도서관이라면 별무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설사 청구기호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원문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할 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도서관도 청구기호는 원칙적으로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한 도서관 내에서도 모든 도서관마다 다르므로 청구기호를 안다는 것은 이미 그 도서를 탐색하여 히트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청구기호로 또다시 동일한 도서를 찾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다. 따라서 『D』는 일단 별무효과라고 판단되지만 만약 청구기호를 분류기호역할로 해석해서 장치하였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A』가 먼저 나와 있다면 기능이 많이 중복되므로 두 장치 모두를 마련한다면 낭비라고 판단되지만 『D』마련에 별 노력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판단되며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C』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움말』에서도 설명하기가 덜 복잡한 『A』를 추천하는 바이다. 만약 『A』가 없는 도서관이라면 『D』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D』만 있을 경우 청구기호 『도움말』에서는 단순히 소재기호<sup>27)</sup> 역할 뿐만 아니라 분류기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교적 정밀하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① 『청구기호 찾는 장치』가 1차(기본) 검색장치로 나와 있으며 특별한 단점이 없다.

② 『청구기호 찾는 장치』가 1차(기본) 검색장치로 나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세검색』장치에서 서명, 저자명 등 다른 1차 검색항목들과 더불어 『불논리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게끔 설정되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24) 그리고 해당 『도움말』에는 '원래 현법은 362이지만 그 하위 주제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는 362.1~362.9가 된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25) 특히 광주대도서관의 경우 주제어항목(1000구분 : 요목표)들 전체를 인텐션도 없이 죽 나열하고 있어서 계층적으로 보여 주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00개나 되는 항목을 주제 순(내용상 분류기호 순)으로 배열해 놓아서 이용자들이 볼 때에는 단순히 1000개의 주제어를 순서 없이 나열해 놓은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용어의 자모순으로라도 배열해 놓아야 이용자 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26) 서울대도서관을 비롯한 『SOLARS』사용도서관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27) 이용자 입장에서 무슨 암호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재기호 이해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 : 『도움말』이 나와 있다.

이용자들을 위한 도움말은 길고 복잡하면 짜증스러워 안보게 되므로 간결하면서도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야 한다.

- ① 위 『A』~『D』각 항목마다 『도움말』이 잘 나와 있다.
- ② 위 『A』~『D』전체에 대한 『도움말』이 잘 나와 있다.
- ③ 위 『A』~『D』전체에 대한 『도움말』이 나와 있으나 미흡하다.<sup>28)</sup>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조건을 중요도 순위 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아래 조건을 전부 갖추면 최적의 시스템(장치)이 된다는 의미이다.

- A : 분류기호가 1차(기본) 검색장치(『전방일치검색』기법 채용, 『불논리연산자』적용 안 됨, 검색결과 출력(간략목록)은 분류기호순 배열)로 나옴
- B : 분류기호 검색을 위한 색인장치(『전방일치검색』기법 채용)가 나옴
- C : 분류를 의미하는 주제브라우저(10000구분이 계층적으로 전개 됨→ 주제어와 분류기호가 대비되어 있음)이 1차(기본) 탐색요소(『불논리연산자』적용 안 됨, 탐색결과 출력(간략 목록)은 분류기호순 배열→ 전방일치 탐색결과물 보여 줌)로 나옴
- D : 청구기호가 1차(기본) 탐색요소(『불논리연산자』적용 안 됨)로 나옴
- E : 『도움말』이 각 항목 별로 잘 나옴

다음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도서관으로는, 국내 도서관의 경우 일반도서관에 한해서 가급적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종별로 다양화하였으며, 『제Ⅲ 장』 연구와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DDC 사용도서관(주로 대학도서관)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회도서관(미국국립중앙도서관 역할), 일본국회도서관(일본국립중앙도서관 역할), 하버드대도서관, 동경대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이상 필자 나름대로 제안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도서관들의 평가표를 만들면 아래 <표 1>이 되겠는데 앞서 논급된 평가항목들의 중요도에 의거하여 항목순서를 정한 다음 조사대상 도서관에서의 해당 유무여부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것이어서 도서관별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 조사대상 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도서관 담당자들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28)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분류에 관한 도움말이 빈약하고 불논리연산자나 절단기법 등 탐색기법 위주로만 안내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대학도서관에서는 대체로 이용자들을 직접 도서관에 불러서 이용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표 1〉 도서관별 홈페이지에서 분류기호 탐색장치 효용성 평가표<sup>29)</sup>

도서관명 <sup>29)</sup>	A			B	C			D		E			비고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국립중앙도서관		○		○		○			○			○	
국회도서관		○							○				30)
미국의회도서관								○				○	31)
일본국회도서관		○		○	○			○		○			32)
하버드대도서관								○				○	
동경대도서관		○							○			○	
서울대도서관		○					○		○			○	33)
연세대도서관													34)
고려대도서관							○						35)
이화여대도서관													
성균관대도서관		○					▽		○				36)
한양대도서관													
경희대도서관		○					○		○				37)
중앙대도서관		○							○				
외국어대도서관		○					▽		○				38)
홍익대도서관							○					○	39)
서강대도서관							○						
숙명여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							○						40)
건국대도서관							○		○				
동국대도서관							○						41)
단국대도서관								▽					42)
이주대도서관							▽		○				43)
인하대도서관								○					44)
부산대도서관							○						45)
경북대도서관		○					▽		○				46)
전남대도서관									○				47)
충남대도서관							○		○				48)
전북대도서관							▽						49)

- 29) 〈표 1〉에 표기할 수 없으면서 각 도서관들의 특징을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비고』란에 『註』표시를 하고 『脚註』에 기술하였다.
- 30) 분류기호, 청구기호로 탐색 가능한 것이 전체 자료에 적용되지 않고 도서 등 몇몇 자료 유형에 국한되어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될 뿐 아니라 분류(또는 분류기호)에 관련된 『도움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31) 분류표(개요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B』가 없어서 아쉽고 『청구기호 또는 분류기호』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청구기호로만 탐색되므로 분류기호 탐색장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32) 국립중앙도서관과 매우 흡사하며 비단 분류기호가 앞에 있지만 『C①』가 특징이다. 한편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를 50음순(기본)과 분류기호순(NDC)으로 배열함으로써 『B』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서전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불합리해 보인다. 관련 URL → 〈[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sh.html](http://www.ndl.go.jp/jp/library/data/ndl_ndlsh.html)〉 사실 『분류표』와 『주제명표목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분만길 바란다.

### Ⅲ. 분류(주제)브라우징을 위한 『DDC 고쳐 쓰기』표준(안) 제시

#### 1. 이론적 배경 및 국내 사례 연구

앞서 누차 논급한 바 있지만 분류기호의 최대 효과는 탁월한 브라우징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홈페이지에 『주제명(표목) ↔ 분류기호』형식을 갖추고서, 『1차 구분(10구분) → 2차 구분(100구분) → 3차 구분(1000구분) → 또는 4차 구분(10000구분)』<sup>50)</sup>을 단계적(계층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1000구분 정도 수준에서 기존의 『DDC 고쳐 쓰기』들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누차 강조하지만 홈페이지에서는 계층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동

- 
- 33)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도서관 등 『SOLARS』 사용도서관들은 『C』를 1차(기본) 검색요소로 개발하고서도 2차(보조, 제한) 검색요소 위치에 있어서 아주 혼란스러우므로 시급히 고쳐져야 하겠다. 그리고 『검색』 표시가 맨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와 있어서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우며 다른 일부 도서관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또한 『도움말』은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빈약한 편이지만 『도서관정보이용법』을 교양강좌로 개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 34)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많다.
  - 35) 앞서 논급했지만 『C』가 100구분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전체검색에만 나와 있고 단행본, 학위논문 등 자료유형별 검색에는 나와 있지 않아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 36) 『C』가 제한(2차, 보조) 검색장치로만 나와 있어서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 경우 앞으로 『▽』로 표시한다.
  - 37) 『C』에서 해당 주제를 클릭하면 분류기호 탐색 란에 해당 분류기호가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나열되는데 이용자로서는 단순히 주제어검색장치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38) 성균관대도서관과 아주 흡사하다.
  - 39) 『C』만 나와 있으나 『도움말』은 자세하게 나와 있다.
  - 40) 『도서관이용안내』에 KDC 분류체계를 소개한 내용이 있지만 검색장치와 연관성이 없다.
  - 41) 전체 검색을 하면 『C②』 수준이지만 자료유형별로 검색하려면 단행본(가장 중요) 등 일부 자료 유형이 『C』 검색 장치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주 잘못되어 있다.
  - 42) 『C』가 제한(2차, 보조) 검색장치로만 나와 있어서 대단히 모순적이다.
  - 43) 주제를 심진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인문과학, 경영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예술로 대별 하였는데 어차피 분류기호 본위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심진분류법들의 주류 전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켰다고 할 수 있어서 높이 평가되므로 타 도서관들도 참고할만하다.
  - 44) 『and』, 『or』, 『not』 을 『그리고』, 『또한』, 『제외한』 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롭다.
  - 45) 앞서 논급했지만 『C』가 10구분만 나와 있어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 46) 『A』, 『D』의 경우, 학위논문 등 일부 자료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7) 『D』에서는 키워드검색(양측절단검색 ← 국립중앙도서관은 임의탐색이라고 한다)만 될 뿐 아니라 검색결과 간략 목록에는 청구기호가 나오지 않아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 48) 『C』에서 전체 검색을 하면 『C②』 수준이지만 단행본(가장 중요) 등 자료유형별로 검색하면 『C』 검색장치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주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D』에서 『키워드 : 양측절단』 검색장치가 기본으로 나와 있어서 911로 탐색하면 973.911 등도 탐색되어 아주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급히 고쳐져야 하겠다.
  - 49) 『C』가 10구분만 나와 있어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 50) DDC는 심진분류법이므로 주제브라우징도 가능하다면 심진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에 분류기호도 필히 제시되도록 잘 설계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분류브라우저의 효과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분류에서는 어떤 주제를 둘 이상의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주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해 임의기호(optional numbers)를 제공하게 되며,<sup>51)</sup> 이것을 임의규정(선택조항 : optional provision)이라고 한다. DDC경우도 오늘날 하나의 국제표준으로 간주될 정도로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각 국가들의 문화적,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국우위(local emphasis)의 메커니즘으로서 임의규정(option)을 마련하고 있다. 다시 말해 DDC의 기호는 그대로 두되 주제나 내용을 자국의 입장에 맞게 조정·변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임의규정인 것이다.

DDC에 나와 있는 임의규정(option)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할구역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분류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을 강조하려 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이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각 국가에서 자국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016에 있는 임의규정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반조직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016에 강조할 지역의 일반조직을 두게 한다. 이 경우 016에 있던 북미의 일반조직은 068.7로 옮겨진다.

② 민족·국적群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특정그룹을 강조하거나 간략기호를 주기 위해서 제공된다. Table 5의 -1에 있는 임의규정은 -1에 강조할 각각의 민족, 국적群을 두고, 이 기호에 있던 북아메리카민족은 -2에 통합되도록 지시한다.

③ 특정 언어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이 임의규정은 분류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특히 언어류(400)와 문학류(800)에서 많이 나타난다. 410에 있는 임의규정의 경우 강조하려는 언어에 대해서는 410의 기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401~409에 언어학(linguistics)을 옮기도록 제안한다.

④ 토픽(주제)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거나 주제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제시된다.<sup>52)</sup> 200(종교류)에서 기독교가 아닌 특정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5개의 임의규정이 제시된다.

⑤ 구체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임의규정

780(음악 : music)에 있는 임의규정은 같은 기호 내에서 악보, 가사, 레코딩을 구별하기 위한

51)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A practical guide*. 2nd ed.(New York : Forest Press, 1996), p.22.

52) John S. Mitchell, "Options in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 The Current perspectiv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19, no.3/4(1995), p.93.

것으로서 바이올린 악보(scores for violin)는 M787.2에, 레코딩은 R787.2 또는 MR787.2에, 소형 악보는 MM787.2의 기호를 가지게 된다.

⑥ 형식에 의한 임의규정의 유형

형식에 따른 임의규정의 유형으로는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간략화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알파벳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연대순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sup>53)</sup>

이러한 DDC 『전개 및 고쳐 쓰기』를 위한 국내의 사례로는, 『연희전문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연대미상)』,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1955)』,<sup>54)</sup> 『국회도서관의 전개 표 및 고쳐 쓰기』,<sup>55)</sup> 및 수정판(동양관계 항목 전개표, 2005),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 쓰기』<sup>56)</sup> 및 수정본(1998), 리재철 교수의 『한국 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 쓰기표』<sup>57)</sup> 및 『듀이십진분류법의 한국도서관을 위한 전개 및 고쳐 쓰기 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동서용 DDC(16판) 전개표』<sup>58)</sup> 및 수정판(1984), DDC 서울대 수정부분<sup>59)</sup>이 있어 왔으며 그리고 근래에 주목을 받는 것으로는 오동근의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 임의규정의 적용방안』,<sup>60)</sup> 김연경의 DDC 22판 편역본,<sup>61)</sup>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국가표준을 지향하며 제정한 것<sup>62)</sup> 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 국가표준으로 공인받아 모든 도서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DC의 임의규정을 지키다 보면 종교류(200)를 비롯한 많은 유(類)에서는 DDC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경우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재전개나 확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sup>63)</sup> 그래서 DDC를 사용하는 한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조정·변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것은 사실상 DDC에서의 “원료의 기호는 어떠한 명백한 지시 없이 함부로 변경하거나 끼워서 쓰지 말 것”<sup>64)</sup>이라는 경구(警句)에 대부분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

53)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vol.1(New York : Forest Press, 1989), p. xlxii.

54) 김중환 역편, 듀이십진분류법, 축소 제7판(서울 : 국립도서관, 1955).

55) 국회도서관 편, 듀이十進分類表 : 主類表, 主綱表, 主目表(서울 : 국회도서관, 1959).

56) 경북대학교 도서관 편, 한국식 전개를 가미한 듀이십진분류법 및 상관색인, 개정표준 15판(대구 : 동도서관, 1963).

57) 이재철, 한국도서관을 위한 듀이십진분류법(제17판)의 전개 및 고쳐 쓰기표, 미고정판(상)(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6).

58) 천해봉, 박영준 공편, 동서용 D·D·C·(16판) 전개표=Expention of D. D. C. (16th ed.) for Oriental Materials (서울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969).

59) 김자후 홈페이지, <<http://web2.kwangju.ac.kr/~jahookim/myhome/DDC-modify.htm>> [인용 2008. 10. 7].

60) 오동근, 여지숙,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21판의 임의규정의 적용방안,” 도서관학논집, 제29집 (1998, 여름호), pp.313-342.

61) 이것은 『국회도서관의 전개표 및 고쳐 쓰기』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62) 김자후 홈페이지, <<http://web2.kwangju.ac.kr/~jahookim/myhome/DDC-option.hwp>> [인용 2008. 10. 7].

63) 오동근, DDC 22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7), p.111.

정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국내 사례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들 내용 중 타당한 것은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DDC 고쳐 쓰기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분류브라우징은 10000구분까지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1000구분만 보여 주고 있기도 하거니와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1000구분의 범위 내에서 고쳐 쓴 부분만 제시하되, 그것이 본표든 보조표든 조기성(助記性)을 살려 동일하게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2. 『DDC 고쳐 쓰기』표준(안) 제시

『1절』에서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 사례조사를 토대로 도서관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필자 나름대로 조정·변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조표를 비롯하여 본표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구분, 지역구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자 하며, 일단 두 보조표를 고치고 나서 본표의 해당 부분들은 보조표와 조기성(助記性)을 가지게 하면 될 것이다.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자국을 최우선에 두고자 하여, 언어구분의 경우 한국어를 영어, 독일어 등에 앞세워 동일계위로서 최우선에 배정하였으며<sup>65)</sup> 다른 동양권 언어(중국어, 일본어 등)들은 십진 기호체계의 한계로 인해 그대로 9 아래에 배치하였으며<sup>66)</sup> 각 언어의 차 하위 항목들은 KDC의 언어공통구분의 전개 내역을 빌어쓰기로 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몇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061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 한국에 있는 단체』

『062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in North America』

『071 Newspapers in North America → 한국 신문』

64)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8th ed. vol. 1(N.Y. : Forest Press, 1971), p.95.

65) 1에 있던 『Indo-European languages』는 91로 이동시켰다.

66) 서울대도서관을 제외한 기존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언어구분의 경우 아시아언어를 1에 배정하고서 11한국어 12중국어 13일본어 2영어 3독일어 순으로 전개했는데, 이는 『DDC 임의규정』에도 위배되며 지역구분과 유사한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분은 주류가 대륙구분이므로 만약 한국어를 앞세울 경우 1아시아 내에서 11한국어 12중국어 13일본어 등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류를 언어단위로 배정한 언어구분과는 근본적으로 전개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언어구분에서는 언어별 장서수에 비례하여 한국어를 앞세워 1 한국어, 2 영어, 3 독일어 등 언어단위로 배정 하고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아시아언어들은 9 아래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KDC4판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순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순서라고 판단되므로 5판에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072 Newspaper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 Newspaper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in North America』

『081 Collections in American English → 한국어 전집』

『082 Collections in English → Collections in English: in American English』

400(언어류)에서의 410(원래 언어학)은 한국어에 배정하고서 언어학은 401~409로 이동시켰다.<sup>67)</sup> 또한 800에서도 810(미국문학)은 한국문학에 배정한 다음 미국문학은 820(영국문학)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유사하게 전개된 본표의 어느 곳에서도 이와 조기성을 가지게 된다.

지역구분의 경우는 아시아(대륙구분) 아래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인접시키고, 한국은 KDC의 전개를 그대로 좇아서 시·군까지 세분기호를 부여한다. 지역구분은 대륙구분 아래에서 국가구분이 이루어지므로 한국을 맨 앞에 배정하려고 아시아를 맨 앞에 두게 되면 국가구분 전체 기호체계가 변경되어져서 매우 혼잡스럽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아시아 내에서 한국을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51)하게 되었다.

한국	-519 → -51
중국	-51 → -52
일본	-52 → -53
아라비아반도	-53 → -56(중동에 포함)

한국시대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KDC에 근거하여 전개하였는데(예 : 한국고려시대사 → 951.04) 한국 각 지방에 적용하려면 부가표(내부보조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sup>68)</sup>

이상의 언어구분, 지역구분은 『서울대도서관 고쳐 쓰기』를 참고한 부분이 많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쳐 써야 할 주제부분들을 논급해 보기로 한다.

100 철학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고쳐 쓰기』를 좇아서 동양철학(181)은 한국, 중국, 일본으로 세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되어 이집트철학(181.2)은 181.7(공란)로 옮기고 이스라엘 철학(181.3)은 시리아·레바논 철학(181.8)과 통합하였다.

67) DDC를 고쳐 쓴 대다수의 도서관에서는 언어학을 400.1~400.9에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DDC 임의규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DDC, NDC 등 다른 대부분의 분류표에서도 그러하듯이 언어학은 한국어, 영어처럼 강목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불합리한 전개는 KDC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KDC 5판 개정작업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68) KDC4판에서는 내부보조표(부가표)에 대한 개념도 없이 DDC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표방하다 보니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필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다행히 5판에서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어서 다행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빠짐 없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도 올바른 형식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철학	181.119 → 181.1
중국철학	181.11 → 181.2
일본철학	181.12 → 181.3
이집트철학	181.2 → 181.7
이스라엘철학	181.3 → 181.8

불교(Buddhism)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고쳐 쓰기』를 따르기로 하여 294.3에서 210으로 이동시켰으며, 이에 따라 DDC 본표의 '210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은 201~208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세부사항은 KDC에 준하여 세분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1000구분 전개를 가정하게 되었을 때 고쳐 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국철학(181.1)처럼 비록 1000구분(요목) 이하의 세목일지라도 한국 관련 수정 부분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만큼 중요한 항목은 일부 제시하였다. 비단 일부이지만 1000구분(요목) 이하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계층적으로 전개하려면 시스템 수정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다면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앞서 언급된 바 있지만 언어구분, 지역구분 등 보조표 관련 내용은 사실 본표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본표의 해당 전개 부분은 보조표의 그것과 조기성(助記性)을 가지게 하면 된다. 다만 보조표의 전개 내역은 홈페이지에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의 지면 제약 상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나머지 수정 안 된 1000구분(요목) 항목을 포함해서 역으로 표현(예 : 한국철학→181.1)하게 될 것이다.

- 031 Encyclopedias in American English → **한국어 백과사전**
- 032 Encyclopedias in English → **Encyclopedias in English, Encyclopedias in American English**
- 051 Serials in American English → **한국어 연속간행물**
- 052 Serials in English → **Serials in English, Serials in American English**
- 061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 **한국에 있는 단체**
- 062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 **Organization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in North America**
- 071 Newspapers in North America → **한국 신문**
- 072 Newspaper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 **Newspapers in British Isles; in England; in North America**
- 081 Collections in American English → **한국어 전집**

082 Collections in English → **Collections in English; in American English**  
181.1 Far East and South Asia → **한국철학**  
181.2 Egypt → **중국철학(1000구분 아니고 한국 아니지만 비중 있는 항목)**  
181.3 Israel → **일본철학(1000구분 아니고 한국 아니지만 비중 있는 항목)**  
\*181.7 Unassigned → **181.7 이집트철학**  
\*181.8 Syria and Lebanon → **Syria and Lebanon; 이스라엘철학**  
\*201~208 →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210 Philosophy and theory of religion → **불교**  
297 Islam, Babism & Bahai Faith → **Islam**  
**315.1 한국통계 (신설 항목) : 한국통계, 중국통계, 일본통계 등은 역사(900)와 조기성 가짐**  
\*401 Philosophy & theory → **400.1**  
\*402 Miscellany → **400.2**  
\*403 Dictionaries & encyclopedias → **400.3**  
\*404 Special topics → **400.4**  
\*405 Serial publications → **400.5**  
\*406 Organizations & management → **400.6**  
\*407 Education, research & related topics → **400.7**  
\*408 Kinds of persons treatment → **400.8**  
\*409 Geographic & persons treatment → **400.9**  
410 Linguistics → **400**  
411 Writing systems → **401**  
412 Etymology → **403**  
413 Dictionaries → **403**  
414 Phonology & phonetics → **404**  
415 Grammar → **405**  
417 Dialectology & historical linguistics → **407**  
418 Standard usage & applied linguistics → **408**  
419 Sign languages → **409**  
**410 한국어**  
**411 한국어 음운 및 문자**  
**412 한국어 어원**  
**413 한국어 사전**  
**414 한국어 어휘**  
**415 한국어 문법**  
**416 한국어 작문**  
**417 한국어 독본, 해설, 회화**  
**418 한국어 고어, 방언, 유행어**  
810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 **한국(어)문학**  
811 American poetry in English → **한국(어)시**  
812 American drama in English → **한국(어)드라마**  
813 American fiction in English → **한국(어)소설**  
814 American essays in English → **한국(어)수필**

815 American speeches in English → 한국(어)연설
816 American letters in English → 한국(어)편지
817 American humor & satire in English → 한국(어)유머
818 American miscellaneous writings → 한국(어)잡문학
820 English & Old English literatures → English & Old English literatures; American literature in English
821 English poetry → English poetry; American poetry in English
822 English drama → English drama; American drama in English
823 English fiction → English fiction; American fiction in English
824 English essays → English essays; American essays in English
825 English speeches → English speeches; American speeches in English
826 English letters → English letters; American letters in English
827 English humor & satire → English humor & satire; American humor & satire in English
828 English miscellaneous writings → English miscellaneous writings; American miscellaneous writings
915.1 한국지리 (신설 항목) → 한국지리, 중국지리, 일본지리 등은 역사(900)와 조기성 가짐
951 China & adjacent areas → 한국역사
*951.01 한국원시시대사 (신설 항목)
*951.02 한국고대사 (신설 항목)
*951.03 삼국시대사 (신설 항목)
*951.04 고려시대사 (신설 항목)
*951.05 조선시대사 (신설 항목)
*951.06 항일시대사 (신설 항목)
*951.07 대한민국시대 (신설 항목)
952 Japan → 중국역사
953 Arabian Peninsula & adjacent areas → 일본역사
956 Middle East (Near East) → 중동; 아라비아반도역사

〈그림 1〉 DDC를 한국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정·변개한 부분

위 〈그림 1〉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류 항목은 홈페이지 게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1000 구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에 관계되는 항목이 아니거나 설명 한국에 관련된 하더라도 너무 세부항목이기 때문이다. 위 〈그림 1〉에 나타난 것은 『DDC 고쳐 쓰기』 전반에 걸쳐 비중 있는 항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것들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고쳐 쓰기』라고 자부하지만 국가표준이 되려면 일차적으로 도서관협회 등 권위기관에서 채택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때 국가표준을 지향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편찬한 바 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홍보부족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국가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개개 도서관 나름대로 『고쳐 쓰기』한 것을 재분류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교훈이 떠오른다.

####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도서관자료를 분류하는 본질적인 효과를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여 각종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서 홈페이지들을 방문한 다음 그것에 기반하여 평가해 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너무나 형편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도서관 관계자들은 자신들 도서관의 결함을 요목조목 따져서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분류브라우징을 위한 『DDC 고쳐 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DDC분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며 나아가 도서관홈페이지 상에서 분류브라우징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표목(용어) 외에도 분류기호를 포함하여 『표목→분류기호』의 형태로 1000구분 또는 10000구분 정도로 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선권고안을 국내 모든 도서관에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개 도서관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간혹 필자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홈페이지 상에서의 표준적인 분류기호 탐색장치』를 수용하려고 해도 시스템수정이 번거롭거나 어려워서 쉽사리 실행 못하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나 『DDC 고쳐 쓰기』를 수용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자료를 재분류해야 하므로 좀처럼 내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필자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서관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당면 과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명의식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호탐색과 관련된 것에 국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분류기호를 포함한 검색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